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 이동 품격 높인다

고령자 시내버스 무료… 10월 시행
마중택시 등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공영자전거 ‘온누리’ 이용 2배 증가

전라남도 순천시가 ‘사람이 중심인 대중교통·자전거·보행환경 친화도시 완성’을 위해 친환경 자전거 인프라 정비, 교통약자 맞춤형 지원 등 실질적인 교통정책을 실시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25일 순천시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75세 이상 어르신 2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 전용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어르신은 월 15회 한도 내에서 시내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현재 관련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의 행정절차와 전산 등록 및 카드 발급 절차 등 정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025년 순천시 자전거의 날’ 행사에서 500여명의 시민이 동천변을 라이딩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고령층의 의료·복지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 참여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마중택시, 콜택시, 바우처택시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마중택시(100원 택시)는 월 이용 한도를 기존 5회에서 6회로 확대했으며 운영 지역도 67개 마을로 늘려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일상 이동 편의를 높였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 26대를 24시간 운영 중이다. 지

난해 약 10만회 운행되며 높은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바우처택시의 경우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시내버스 요금으로 순천 전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 32대에서 40대로 확대 운영해 이동 선택권을 넓혔다.

순천시의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환경) 친화도시 구축의 중심축인 자전거의 경우 ‘온누리 자전거’ 대여소를 올해 상반기 기준 64개소까지 늘렸으며 연내 70개소 조성을 목표로 지속 확대 중이다.

특히 QR코드 기반의 모바일 대여 시스템과 1일 3시간 무료 이용 정책 도입 후 이용 건수가 전년 동기(1~5월) 5만9000회에서 올해 12만5000회로 2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시는 전국 최초 ‘온누리 자전거 이용 실적 봉사활동 인증제’를 통해 하루 30분 이상 이용 시 자원봉사 시간 인정(월 최대 30시간) 제도를 운영하면서 청소년과 시

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전거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순천시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문화 정착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도 2015년 대상 수상 이후 약 10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등 교통안전, 온실가스 저감, 혼잡비용 감소 등 다양한 부문에서 지속가능성을 입증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대중교통 확대, 친환경 자전거 활성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해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 교통도시 순천’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2025순천세계유산축전 ‘웹툰·애니메이션’ 공모

선암사·순천갯벌 배경
7월16일부터 이메일 접수

전라남도 순천시와 순천세계유산보존협의회가 세계유산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웹툰·애니메이션 공모전을 개최한다.

25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2025순천세계유산축전을 앞두고 순천이 간직한 세계유산의 매력을 웹툰과 애니메이션이라는 콘텐츠로 표현함으로써, 미래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오는 7월22일까지이며, 작품 접수는 7월16일부터 22일까지 이메일(2025scwhf@naver.com)을 통해 진행된다.

국내 거주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인당 1작품으로 제한된다.

참가자는 웹툰 또는 애니메이션 중 하나의 분야를 선택해 선암사 또는 순천갯벌을 배경으로 한 창의적인 서사를 담아야 한다.

심사는 콘텐츠와 문화예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각 최우수상 1점, 우수상 1점, 장려상 2점 등 총 8개 작품이 선정된다.

총 상금은 1200만원 규모로, 선정된 작품은 오는 9월11일 열리는 순천세계유산축전 포럼 현장에서 시상한다. 작품은 축전 기간 공식 누리집과 SNS,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전시 및 홍보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과 공모 내용은 순천세계유산축전 공식 누리집(www.scwhf.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5순천세계유산축전은 ‘순천유산, 이어가는 삶의 흔적’을 주제로 오는 9월12일부터 10월3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축전은 선암사와 순천갯벌 일원에서 열리며, 유산 투어,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관람객과 소통하고 세계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할 예정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청소년 대상 AI 디지털 교육… 미래 인재 양성

AI 기반 맞춤형 학습 등

전라남도 순천시는 AI 시대를 대비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청소년 대상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지역사회·청소년시설이 함께하는 통합적 접근 방식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이해도와 활용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순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총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AI 기반 맞춤형 학습, 디지털 창의 프로젝트, 코딩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교원과 업무 담당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연구회, 전문가 특강 등도 병행해 진행한다.

청소년의 건강한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 형성을 위한 ‘AI 과의존 예방 및 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 균형 잡힌 디지털

교육을 지원한다.

아울러 관내 청소년시설에서도 다양한 AI 관련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순천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창의융합캠프,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 작품 제작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선도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AI 도구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및 영상 제작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상반기 3D펜 프린팅, AI 기반 보드게임 제작 프로그램에 이어 하반기에는 디지털새싹캠프-코딩, 인공지능 AI 코딩 드론조립 등으로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오는 8월까지 MBTI·치유심리극을 통한 자기 이해, AI와 웹툰을 활용한 진로 체험, 챗GPT를 이용한 취업 준비 교육 등을 운영한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왕조2동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지역 경로당과 취약계층 가구에 나눠줄 열무김치를 만들고 있다.

순천시 제공

왕조2동 주민자치회, 열무김치 나눔

경로당·취약계층 66가구 전달

전라남도 순천시 왕조2동 주민자치회는 최근 여름맞이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된 이번 행

사는 우리 지역 식재료로 담긴 열무김치 5kg 66박스를 위원들이 직접 지역 내 경로당, 취약계층 66가구에 전달했다.

선학규 왕조2동 주민자치회장은 “김치 나눔 사업은 겨울철에 집중돼 취약계층의 여름을 나기 위한 반찬은 부족한 실정이

라 여름 열무김치 나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미자 왕조2동장은 “새벽부터 김치 재료 구입에서부터 손질, 담그기, 마지막 배송까지 애써주신 주민자치회원들께 감사 드린다”며 “위원들이 직접 김치를 전달하면서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취약계층을 살피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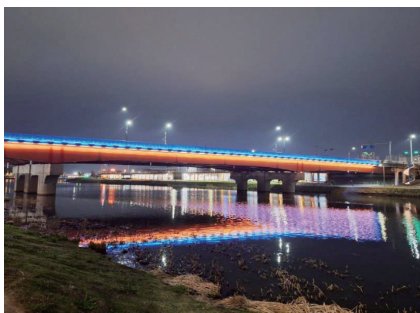
동천 야간경관 조성 속도낸다

순천교 등 4개 교량 연내 완료
시민에 도심 속 쉼터 제공 기대

전라남도 순천시는 정주환경 개선과 도심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동천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설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조성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천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스페이스브릿지, 신산교, 출렁다리, 철교, 조곡교 등 5개 교량과 벚꽃길(3.8km), 강남정, 원형계단, 교각 하부 등에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에는 팔마대교(연장 143m)의



순천시 동천 팔마대교 야간경관.

순천시 제공

경관조명이 완공됐으며, 풍덕동장미터널도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순천교, 풍덕교, 용당교, 원용당교 등 4개 교량에 대한 야간경관 조성도 연내 마무

리될 예정이다.

이들 구간이 모두 완공되면 스페이스브릿지에서 원용당교까지 이어지는 동천 구간이 감성적인 야간경관의 축으로 연결, 순천의 밤을 더욱 아름답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LED 경관조명과 수면부 반사 조명을 활용해 화려하지는 않지만, 감성적이고 편안한 야경을 연출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도심 속 휴식처를, 관광객에게는 순천의 또 다른 야간 명소를 제공한다.

특히 동천변 오천그린광장, 그린아일랜드 등 생태공간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야간경관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도시 전반의 품격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배서준 기자